

‘지하철’이란 작은 세상에서 바라본 ‘의’

2017310134 소비자가족학과 정지인

“오늘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송내역에서 지하철을 탈 때 항상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지하철에 오른다. 그렇다. 나는 약 2년째 부천에서 혜화까지 평균 1시간 30분의 거리를 통학하는 프로통학러이다. 약 2년 동안 통학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지하철은 또 다른 하나의 작은 사회이자 세상이며 그 세상은 지독히도 이기적인 세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하철에는 그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규칙 중 첫 번째는 바로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서면 그 자리는 그 앞에 서있던 사람이 앉는다.” 라는 것이다. 보통 지하철에서는 들어온 시간과 관계 없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면 그 자리는 그 앞에 서있던 사람이 앉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어디서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먼저 앉아??”

지하철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평화가 깨지는 소리이다. 지하철에서 평화가 깨진 이유는 바로 저 암묵적인 규칙이 깨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내가 겪은 바로는 이 세계에서 지하철의 저 암묵적 규칙이 깨지는 상황 중 90프로 이상은 대개 ‘노인’에 의해서이다. ‘노인공경’은 옳은 일이며 정의로운 일이라 불리지만 모두가 힘든 이기적인 지하철의 세계에서 ‘노인공경’이란 마지못해서 또는 남의 눈치가 보여서 이루어지는 행동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앞에 노인 분들이 서시면 잠들어 못 보지 않는 이상은 일어났다. 그러한 행동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행한 것이었다. 가끔 몸이 힘들어 보고도 못본척 해보려 했으나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일어나곤 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수오지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수오지심’이란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맹자는 인간의 내면에는 이 ‘수오지심’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의’의 단서라고 하였다. 여기서 문득 ‘모든 인간의 내면에 ‘수오지심’이 선천적으로 있다면 모두가 의로운 행동을 할 텐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보통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자리를 비킨다. 그리고 그 행위는 내가 느꼈던 마음과 같은 이유로 일어나기도 하고 단지 남의 눈치가 보여서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에 대한 반발심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자리를 비키는 건 배려지 의무가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답니까?”

조금은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말이지만 지하철이라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반응이다. 이와 비슷한 반응은 이 세계의 다른 규칙이 깨질 때에도 나타난다. 바로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지 않을 때이다.

“저기요! 좀 일어나세요. 임산부 배려석이잖아요.”

“배려석이잖아요. 당신이 뭘데 피곤한 사람을 깨우고 난립니까?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당신이 일어나서 비켜주던가!”

바로 저번 주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임산부 배려석’에서 자고 있던 남자를 임산부가 나타나자 옆 사람이 깨우면서 일어난 내가 겪은 상황이다. 보통 앞에서 말한 첫 번째 규칙은 일반석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이다. 이 세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지는 ‘의로움’이자 ‘예의’는 바로 한 쪽에 마련된 ‘노약좌석’에는 앉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일반석 사이에 섞여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모두가 당연히 지킨다기보다는 각 칸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지켜진다. 어떤 칸은 처음부터 모든 ‘임산부 배려석’이 비워져 있으며 그 칸은 새로운 사람들이 타더라도 자연스레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놓지만, 애초에 비워져 있지 않고 이를 신경 쓰지 않고 타고 가는 칸은 그 자리가 비워지면 바로 그 주위 사람으로 채워진다. 물론 이 자리가 비워졌을 때 자신의 앞자리가 비워졌음에도 앉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이는 ‘수오지심’이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그 옆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수오지심’이 없는 사람인 것일까? 공자께서는

“법률로 인도하고 형벌로 가지런히 하면 백성이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워하고 또한 선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실 ‘임산부 배려석’ 문제는 요즘 꽤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이다. 내가 그것을 느낀 건 언제부턴가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주세요’라는 안내방송을 한다는 것을 알아챈 후 부터이다. 노약좌석과 관련된 안내방송은 나오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이 세계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을 비우는 것을 조장하고 규칙화하기 시작했다. 일반석에서 노인이 있을 경우 자리를 비키라는 것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노인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강요되어져 왔을 것이다. 위의 공자의 말씀을 보고 ‘아마도 의로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오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의’가 강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공자의 저 말씀을 의를 강요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만을 두려워할 뿐 진정으로 의를 행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든 마찬가지로이다. 힘없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힘든 임산부를 위해 지정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분명 의로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강요되자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한 반응을 보이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보다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불편함을 느끼기 싫어 마지못해 행한다. 물론 지하철에서 항상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 학생도 힘드니까 저러겠지요. 저기 노약좌석도 비어있는데 저기 가서 앉으면 될 걸 왜 소란을 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폰대소리를 듣는거요!”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지하철의 평화가 깨졌을 때 다른 노인 분께서 하신 말씀이다. 일반석에 앉아 있던 학생은 자고 있었고 노약좌석이 비워져있음에도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학생을 깨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소리치고 있는, 그 누구도 그 쪽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 할아버지께서 저 말씀을 하신 순간 모든 시선이 저 말씀을 하신 할아버지에게로 집중되었고 곧이어 두 노인 사이에 몇 번의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 상황은 소리치던 할아버지가 몇 번 헛기침을 하시더니 노약좌석으로 이동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그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칸에 노인을 포함하여 아이들,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 등이 타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을 겪고 나는 다시 한 번 위에서 말한 공자의 말씀이 떠올랐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워하고 또한 선에 이를 것이다’라고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지하철이라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 말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였다. ‘그 노인 분이 똑같이 소리를 질렀다면 과연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랬다면 이에 대해 반발심을 갖는 어떤 사람이 또 등장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행동하신 후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을 나는 그 후의 행동들을 보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의’라는 것은, ‘수오지심’이라는 것은 강요되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과 ‘예’를 통해 때로는 ‘모범’이라는 것을 통해 ‘의’를, 내면의 도덕성을 일깨워 주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느꼈다.

지하철에서 ‘의’에 대한 사람들의 외면이 일어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 바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상황에서도이다.

“뽕소니 사고를 당해 다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나 5살 된 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천원이라도 좋으니 도와주시면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하철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멘트이다. 사고 경위나 불편한 곳은 서로 다르지만 보통의 사정은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의로운 일이며 정의로운 일이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일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커피 한잔 덜 사먹으면 되는 돈인데 왜 저렇게 다들 무심정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흔쾌히 기부를 하곤 했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이 왜 외면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다. 바로 위와 같은 말을 하셔서 내가 기부를 했던 분이 다음 정거장에서 멀쩡히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내가 그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저 사람 아마 다리 한쪽 저 큰 옷 속에 접어났던 걸 거야. 지하철에 저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괜히 돈 낭비하지 마 학생.”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 저 사람들은 ‘의’를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의’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자께서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

)

“언을 것들 보며 의로움을 생각하라” (

)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이익이 되는 일이라든가 의로운 방법에 의해서 얻는 이익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익은 의로운 이익과 의롭지 않은 이익이 있다. 의로운 이익은 의로운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이며 의롭지 않은 이익은 그렇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다. 공자께서는 이익을 보면 의로운 이익인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이익이라면 혹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더 큰 이익, 즉 의로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위의 상황에서 저 사람들도 분명 각자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5살짜리 아들이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을 속임으로써 취한 이득은 결코 의로운 이익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양심과 남을 속였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행함에 있어 그 행함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나 역시 그 상황을 겪을 후 부터는 저런 사람들을 볼 때 선뜻 신뢰가 가지 않고 기부를 꺼려하게 되었다. 예전에 있었던 사랑의 열매 비리 사건이 그랬듯이 ‘의’를 이용한 또는 ‘의’를 가장한 의롭지 못한 이익 추구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는 단순히 ‘의’를 사적인 이익에 이용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의’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통학 생활을 하면서 지하철이라는 작은 세상에서 느낀 ‘의’는 진정한 ‘의로움’ 이라기보다는 타의적으로 강요되고 마지못해 행해지며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되는 진정한지 않은 ‘의로움’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의’를 일깨워주는 사람들은 존재하며 의심이 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하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였다. 지하철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의’ 또는 ‘의로움’을 행해야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는 다들 인지하지만 그 의로운 행동이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은 아닐 것이며 가끔은 정의롭지 못한 것에 흔들리는 상황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를 강요하거나 또는 ‘의로운 상황’을 조장하거나 만들려고 해서는 안되며, ‘수오지심’을 통해 부끄러움을 깨닫고 눈앞에 당장 이익이 있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낄 행동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義): 처벌보단 소통으로, 법보단 사랑으로

2017314343 통계학과 박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할 때, 앞장을 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사람 또한 없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바르게 사는 사회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말한다. 다소 이상적으로만 느껴지는 이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일궈질 수 있을까? 나는 단호하게 ‘사랑’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어렸을 적에 ‘의(義)’와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다. 나의 부모님은 늘 바쁘셨다. 나는 항상 아무도 없는 집으로 하교했고, 혼자 있는 것을 걱정한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일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학원을 다니도록 하셨다. 갓 지어진 밥보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밥이 더 익숙했고, 나에게 집밥이라는 것은 혼자서 차려 먹는 간단한 한 끼의 의미뿐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외로운 유년 생활을 보냈다고, 그래서 나는 ‘의(義)’와 가까운 착한 아이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나는 그 시절에 내가 외롭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큰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 모두 연락이 안 돼서 옆집 사는 이웃 할아버지 집 초인종을 누른 적이 있었다. 반응이 없어 아랫집으로 내려가 또 이웃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정말 많이 운 기억이 있지만 그것은 이런 상황이 서럽다고 느껴져서는 아니었다. 그냥 아파서, 많이 아파서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 나는 분명히 외로워했어야 했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에 너무나도 둔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꽤 많은 도둑질과 거짓말을 일삼았던 기억이 있다.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것부터 아빠의 지갑까지, 학교부터 다녔던 몇 개의 학원까지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그 친구가 미워서도 아니었다. 그냥 지금 내가 필요해서, 갖고 싶어서였다. 그러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걸리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 너무나도 슬픈 척하며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공수를 부렸다. 지금 내가 생각해도 어린 나는 정말 이기적이었다. 친하지 않은 친구의 마음은 배려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다니기 싫은 학원을 하루에 세네 개씩 보내는 부모님을 원망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물질적인 것을 통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한없이 어색한 존재였고, 그저 나를 구속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이런 나에게 당연히 ‘친구’라는 것도 큰 의미는 없었다. 그저 보여주기 식의 존재에 불과했다. 이러한 생각은 중학교까지도 이어졌다. 나에게 공감과 배려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일 뿐이었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존재도 내가 진심으로 위해주고 싶은 친구의 존재도 찾기 힘들었다. 어릴 때의 나쁜 손버릇은 고쳤지만, 이조차도 나의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지 나의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었다. 여전히 나는 ‘의(義)’와는 거리가 먼 아이였다.

‘의(義)’와 거리가 멀었던 나에게 ‘의(義)’에 대해 물었다면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잘못은 들켰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처벌이 있어야 바로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시절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저 오글거리는 이상적인 단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가식이 팽배할 뿐이지 진심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나는 아마 이 학자의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섭공은 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 매우 정직한 직공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아버가 양을 훔치니 자식이 증언했습니다” 『자로』

섭공의 말에는 사회는 법과 같은 타율적 규율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으로 깔려 있다. 때문에 아버지가 양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을의 법도에 맞게 증언한 직공을 정의로운 자라고 평가한 것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로 벌을 받고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한 나였지만, 모순적이게도 나는 법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규율로 사람들의 잘잘못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한 잘못은 작은 잘못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TV에 나오는 범죄자들과 나는 확연히 다른 경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동시에 사람의 ‘사랑’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자 하는 캠페인이나 종교의 한 구절을 보면 한없이 부질없는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말이다.

그런 나에게 생각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진짜 ‘친구’들을 얻게 되면서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예전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그전에 만난 친구들은 변하기 전의 나 같은 친구들이었다. 모두가 그랬다고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오래가고 싶을 정도로 내 감정을 흔든 인연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 만난 친구들은 달랐다. 그저 나와 성격이 잘 맞아서, 노는 취향이 잘 맞아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은 호감형의 친구들이어서는 아니었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변하게 된 계기는 이 친구들을 통해 내가 스스로 내 잘못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부모님과 불화는 여전했다. 나이가 드니 부모님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원들로 기회를 줬음에도 여전히 학업적인 부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나를 채찍질했다. 성적이 부모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맨발로 쫓겨난 적도 있다. 나를 위해서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다. 그런 생활 속의 나에게 성적표 나오는 날은 지옥이었다. 받기도 전부터 벌벌 떠는 나의 모습에 친구들은 처음에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며 웃어넘겼다. 그 모습은 평소에 대범하게 노는 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런 모습이 지속되자 친구들은 나의 가족 이야기를 물어왔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서 말이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 드는 느낌은 ‘부끄럽다’였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다. 한 친구는 부모님의 이혼부터 재혼까지 혼란스러운 과정을 사춘기 시절에 보냈었고, 또 다른 친구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나의 성적 부담과는 차원이 다른 부담을 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은 TV 같은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수많은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통해 보면서 자라왔다. 그래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그 TV 속 사람들과는 은연중에 전혀 다른 경우라고 여겼던 거

같다. 내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밝아 보였던 내 친구들도 티 내지 않았지만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있었고, 난 그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털어놓고 보니 내 고민은 정말 작은 고민이었다. 그보다 그 순간 더 놀라웠던 것은 별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서로 힘든 사정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나눈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다. 신기했다. 소통을 했을 뿐인데,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다. 진짜 내 편이 생긴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받아본 기억으로 아직까지 가슴 한구석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순간이다.

그 당시 얻었던 건 친구들 사이의 사랑, 즉 '우정'만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짜 내 잘못을 깨우치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얻게 되었다. 다 각자의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외면해온 것은 나뿐이었다.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삶도 있었었던 것이다. 난 늘 부모님을 탓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돌아해보니 나 또한 부모님께 너무나도 부족한 딸이었다. 어색하다는 이유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샀다가 끝끝내 드리지 못하고 방구석에 놓아두었다. 엄마의 생일인 것을 알았지만 엄마도 내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스스로 모른 척하기로 했었다. 이런 상황과 너무 비교되게 친구들은 부모님의 기념일들을 챙겼고, 부모님께 평소에 따뜻한 말들을 건넰곤 했다. 너무 부끄러웠다. 또, 어렸을 적에 저질렀던 작은 잘못들 하나하나가, 또 진심으로 친하지 않다고 해서 무시해왔던 친구들의 마음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는 더더욱 말이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순간 느꼈던 감정은 배려를 하는 것에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진정한 '소통'이 준 사람과의 '사랑'이었고, '부끄러움'이자 '의(義)'였다.

이 긍정적이고 신선한 충격은 나를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 주었다. 다른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었다. 친구를 사귀에 있어 좀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고 타인의 마음을 쉽게 무시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둘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가족의 역할부터 선생님 같은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꽤 많이 덜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온전하게 부모님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소통의 중요성을 알게 된 지금까지도 부모님과의 소통은 아직 나에겐 너무 낯설었다.

그렇게 지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 첫 번째 수능을 치고 돌아온 그날도 집에 돌아오니 여전히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이었다. 모의고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못 쳐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울음만 터져 나왔다. 그러다 부모님이 퇴근하셨고 울고 있는 나를 보고 두 분 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리고 밥 차렸으니 나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밥을 먹는데 울음이 계속 새어 나왔다. 그때 엄마가 내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면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울까봐,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몰아세운 거야. 너는 그냥 듣기도 싫어했지만..." 평소였으면 또 그 말을 듣고 흘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그 식탁, 내 감정과 엄마의 목소리는 아직까지도 그때를 떠올리면 울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재수를 결정하고 기숙 학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좀 되기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다. 아빠의 편지였다. 그 누구보다 무뎠던 아빠였기 때문에 편지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뜯어보기에 망설여졌다. 그러다 편지를 뜯어보고 읽는데 별다른 말들은 없었지만 하나같이 그 모든 문장은 나를 얼마나 걱정하

고 응원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 보는 아빠의 글씨체였다. 학원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기간이라 힘들어서였는지 정말 아빠의 진심이 느껴져서 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가족과도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아직까지도 나는 엄마와 아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지도, 다른 가정의 애교가 많은 딸처럼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하지도 못한다. 다만, 그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온전히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변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매년 상황의 탓으로, 그리고 부모님의 탓으로 돌렸었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내가 힘들었다고 한 그 시간들 동안 내가 외면한 뉘까지 부모님이 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 건, 그리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된 건 부모님께 혼나면서도 아니었고 다른 누군가의 질타를 들으면서도 아니었다. ‘소통’하면서 타인의 진심을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될 때, 그때였다. 이것이 지금의 내가 잘못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처벌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지금의 나에게 ‘의(義)’에 대해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할 수 있는 건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일 것이다.”

그렇다고 어렸던 나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어느 정도 한에서 타율적인 규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나 오직 처벌을 피하는 것에 급급한 것으로는 절대 정의로운 사회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나는 내 경험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분히 깨달았다. 내가 내 그릇된 생각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었던 건 다른 이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의 나는 석공보다는 공자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공자는 의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고을의 정직한 자는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니, 정직함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로』

공자에게 이상적인 사회는 타율적 규율에 의한 사회가 아닌 사랑이 전제된 사회이다. 공자는 아버지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끼고 감춰주는 것이 의로움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가족을 위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부터 이 세상의 만물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이 전제된 사회가 되면 소통을 통해 서로가 스스로 배려하는 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공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나도 친구의 가정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가정 속 노력으로 나로 하여금 변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 실제로 나는 그 변화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관계를 탈바꿈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가정에서부터 주변 사람으로 확장된 것이다. ‘사랑’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엔 나는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얻었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내 잘못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의(義)의 단서이다.” (『맹자』 「공손

추」)

나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수 있음으로써 나는 이전보다 조금은 ‘의(義)’에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추상적인 문학 공부 같은 것보다 논리적이고 확실한 수학 공부를 더 좋아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랑’같은 것보다 눈에 보이고 확실한 ‘규율’같은 것을 더 믿으면서 자라왔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것들이 긍정적인 것임을 마냥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이 줄 수 있는 효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야 나는 공자의 말을 조금은 알 것도 같다. 무시할 수 없는 그 힘을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떨까? 정의로운 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 감히 예상하건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혐오의 시대’에 비유할 수 있다.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성별 간의 혐오, 세대 간의 혐오, 그리고 경제적 소득 차이에 따른 혐오 등의 편 가르기에 급급하며 소통보다 불통에, 비판보다 비난에, 그리고 배려심보다는 내 이익을 챙기기에 안달이 나 있다. 신뢰가 아닌 서로를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혐오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가 되어 혐오 범죄로 나타나기도 한다.

2016년 5월 17일에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남성이 여성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여성을 표적 삼아 ‘묻지 마 살인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10대가 70대 노년의 경비원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단순히 혐오 사건으로 분류하고 편을 나누어 공론장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로를 헐뜯기 위해, 그저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본질을 보지 못하는 무의미한 활동일 뿐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강한 법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자연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분노는 언젠가 터져나올 것이다. 나는 지금 그들의 분노가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생각이 그릇된 생각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사회의 법이 아닌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대 한국 사회는 사람 간의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무관심해 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소통은 자연스레 줄어들었고 어쩌다 잘못된 사고에 빠지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됨을 인지할 수조차 없게 되었고, 최악의 경우 사회의 악으로 간주되곤 한다. 때문에 나는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 한다면 외부적 제도가 아닌 문제의 본질인 ‘사람’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돌아설 수 있을 때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예전의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공자의 말에, 그리고 제도가 아닌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나의 주장에 너무 이상적이라며 반박할 수도 있다. 공자가 바란 신뢰와 같은 자율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는 사회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상적이기만 하다. 하지만 나는 이상으로서라도 ‘정의로운 사회’가 남아있어주길 바란다. 그것을 목표로 우리 사회는 방향을 정해 그 곳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자가 말한 그 정의를 완

전하게 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길잡이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정의로운 사회의 존재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으며 소통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씩 내딛게 된다.

번지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번엔 슬기로운데 대해 묻자,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공자는 답했다.

번지가 알아듣지 못하자 공자는 말했다. “곧은 사람을 등용하여 곧지 않은 사람의 위에 두면, 곧지 않은 사람도 곧게 되는 것이다.” (『맹자』 「안연」)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한 사회의 리더가 명심해야 할 말이자 이상적으로 보이기만 하는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을 등용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 번에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각각의 사람들은 각자의 사소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작은 깨달음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결국에는 사랑이 전제된 정의로운 사회를 믿어 나갈 거라 믿는다. 때문에 공자의 정의로운 사회는 반드시 꿈같은 이상으로, 또 우리의 행동의 깃발로써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야 쥘야 한다. 그래야만 ‘정의’라는 단어가 늘 지켜져야 할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고전 : 경영학과- 2017310169 이향- 정의로운 사회-

제목 : 꿈은 정의롭다.

진솔하게 저의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한 저의 이야기이자 저의 삶입니다. 먼저 옳음이란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옳음은 다양하지만 False와 True 중 true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아니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 거짓으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북한(북조선)입니다. 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교수님께서 많이 놀라시진 않으셨겠지만 처음 교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국 학생이라고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가 북한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의가 거의 사라지고 거짓과 사기로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매슬로우(maslow) 욕구인 5단계 중 1단계도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슬로우 욕구는 단순합니다. 1단계 - 생존의 욕구, 2단계 - 안전의 욕구, 3단계 - 소속의 욕구, 4단계 - 존경의 욕구, 5단계 - 자아실현의 욕구, 5단계 -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중 생존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서로 도둑질을 하는 북한에서 저는 정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사상이었습니다. 무조건 한 사람 만지지 해야 하고 한 사람만 투표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김일 가입니다. 하나의 채널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세습 받았고 일주일에 휴식 일은 일요일 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엄마가 조선로동 당원이 아닌 것이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다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저에게는 언니, 오빠가 더 있습니다. 이 에세이를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혹시 이 글이 퍼져서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진솔하게 옳음을 주장하고 싶기에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친척들도 많고 북한에 아직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안 되었다고 하겠지만 저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액자 구성으로 쓰는 편입니다.

2013년 3월 10일 4시 30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같이 중국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중국에 가면 안전하지는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도 없고, 진실이란 전혀 없는 북한 땅에서 살아보아야 미래가 없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학교를 열심히 나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상장을 준다고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였는데 그 명단에 저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교에 후원금을 잘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북한 학교에서 전교는 아니지만 학급에서

2등은 항상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 6등에서 5등 정도는 하였습니다. 10등까지 상장을 주는데 저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화가 나셨고 선생님을 찾아가 물어보았으나 선생님은 다른 이야기는 없고 모범학생을 위한 상장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만 줄줄이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더 화가 나셨고 정의를 외치는 북한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학생을 자본주의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하시다. 결국 흰쌀(입쌀)을 20Kg을 학교에 제출하니 그때야 저의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쌀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라고 하면서 노래 가사도 사회주의 우리나라라고 많이 선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경험한 것은 거의 자본주의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가려고 하면 집 한 채 값은 있어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실태에 질려서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고픔과 서러움 자본주의로 되어가는 북한을 결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맹자 진심에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다음이고, 군주는 가벼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백성이 먼저가 아니라 나라가 먼저입니다. 아니 군주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인민들의 어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핵을 만들어 놓고 뉴스로 우리나라는 강성대국이다 핵 강국이다. 라고 선전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아버지도 언니도 속이고 저와 엄마는 이익만 챙겨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저와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다시 꼭 돌아오라는 당부만 몇 번이고 하셨습니다. 논어 현문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고 쓰여 있지만 저는 일단 저부터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뒤에서 마치 국경 군대들이 따라오는 것만 같아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의 눈을 잘 피해서 중국에 도착하였지만 중국어를 못하는 어머니와 저는 세상에 단둘이 살아 있는 느낌이었고 저녁에는 차들의 불빛들이 낮설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북한에서 수학교사를 하셨는데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많이 보셔서 그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활도 부족하고 해서 장사를 하셨는데 너무나 솔직하셔서 계속 사기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는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느끼시고 저와 의견이 같다고 생각되어 같이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것에 불편을 알게 되었을 때 다행히도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이모가 한국에 먼저 입국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는 한국으로 가면 조금 더 자유롭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3년 4월 26일 아침 8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말 인천공항은 천국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걸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하여서 여기는 정의롭고 분명히 우리가 원하던 세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어렵게 살았고 Just를 잘 못 배웠고 저의 친구가 성추행 당해도 모른 척하던 나라에서 살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정당한 것인지 잘 몰

랐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배웠습니다. 배울 때는 대한민국은 정의롭다고 옳음과 옳지 않음 그분 짓은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교육 기관 이름은 하나원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12주를 수료해야만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북한(고향)을 잊으려고 열심히 대한민국을 배웠습니다. 사회 과목을 제일 열심히 배웠습니다. 1대 대통령부터 18대 대통령까지 줄줄이 외었습니다. 민주화운동들과 어떻게 민주주의 나라로 만들어 왔는지를 정말 빠짐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살 줄여서 중학교를 갔습니다. 너무나 큰 산이 저에게는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를 배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고통이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나라인데 왜 언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사기는 데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한 사람이라고 놀려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 둘째 한국 학생들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 못 하는 저, 셋째 저의 사투리 그때 당시 북한에서 계속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찾아서 한국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숨도 쉬지 못하고 저의 정체성까지 잊고 살게 되다니 저는 매일매일 지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이 말하는 언어들을 녹음해서 검색해보고 이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차별도 정의에 들어가는데 한국 학생들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로 차별하고, 얼굴로 차별하고, 돈으로 차별하고, 학교로 차별하고, 이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컴퓨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컴퓨터를 처음 다루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혹시 정말 컴맹임?” 저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대답은 성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응”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하나하나 알려 주었습니다. 그때 대략 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착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친구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맹자 이루어 이루길 인은 사람의 편안한 거처요, 의는 사람의 바른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인과 같았고 그래서 저는 의로 바른길을 걸어가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니 다들 공부에 매진하고 누구도 친구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끼리끼리 놀고 심지어 화장실도 끼리끼리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아 싸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후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도 없고 계속 적응하려고 노력해도 한국말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불쌍하고 왜 한국에 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북한에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이야기할 사람도 많아서 불만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저 혼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북한 학생들만 공부한다는 대안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질감을 느껴 보려고 하였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배 우선순위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기

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떠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의 경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부패한 경영자가 아닌 정의로운 경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즉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영자가 정말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CEO는 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전략을 세운 후에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경영자가 할 일입니다. 바로 군주 같은 사람인 셈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북한은 기업들이 모두 정부가 관리함으로써 경영자 또한 국가의 통제를 받고 국가에서 키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가 규제가 없이 회사의 경영자, 즉 전문 경영인이 된다면 많은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통일된 북한에서 전문 경영인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꿈이 전문 경영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연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냐고 질문하고 싶겠죠. 한국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한 학생들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너 같은 학생이 그런 꿈을 꾸냐는 비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논어 자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이 추어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 한 연후 지송백지후조야” 저는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소나무이고 잣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꿈을 향해 저는 대학교 학과도 경영학과로 지망했습니다. 친구 사이만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회도 정의롭지 않았습니니다. 그시기에 제가 고3일 때 최순실 사건으로 사회가 모두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들고 일어났으며 다시 한 번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임하였고 비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억울하게 희생된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나이가 같은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때 그저 한발만 빨리 그들을 위해 갔었다면 그들은 모두 살았을 것입니다. 304 명제와 똑같은 친구들이었고 꿈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른 점이 별로 없다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변화시킨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비들을 넘어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대학생이었고 대학교 생활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생 된 것은 꿈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성고 전시 간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명명덕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그다음 더 넓게 다른 사람들을 알 수 있고 보살 필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이것처럼 저는 저를 먼저 수양하기 위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라는 큰 관문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또한 너무 어렵고 버티어 내는 것조차 힘든 곳입니다. 팀플 과제를 할 때 잘 못하면 친구들은 북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하지도 않는 친구들과 팀플을 하곤 합니다. 특히 국제어로 수업 들을 때는 저랑 같이 앉으려고 하는 친구들조차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 모임 외에는 늘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고, 늘 혼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들은 저를 피하고 마치 마주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 인성 간언을 외웁니다. ‘근본을 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말단을 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맹자 고자 “중기 대체 위대인 중기소체위소인” 근본을 따는 사람...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지만 저의 꿈과 바로 된 저의 정신 덕으로 저는 지금까지 휴학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면 대한민국 와서 지금까지 올바른 삶을 살아왔냐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잘 적응하고 있고 비록 성적들은 좋지 못해도 꿈의 변화가 없고 흔들림 없이 정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비유 따위 맞추지 않으며 제목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옆에 진정한 친구 한 명 두 명 생기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늘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정의는 승리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정의와 꿈으로 채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2013년 3월 10일보다 힘든 날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긴 에세이를 읽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